"에어컨 안켠다" "개짖는 소리 시끄럽다" 말다툼·주먹다짐

장마철 '짜증범죄' 잇따라

광주시 동구 A아파트 7층에 사는 김모(여·40)씨. 두 자녀를 둔 김씨는 후텁지근한 날씨임에도 아파트 창문을 닫은 채 산다. 누군가 복도에서 핀 담배 연기가 집안으로 빨려 들어오기 때문이다.

담배 연기가 집안으로 스며들 때마다 아이들도 아우성이다. 참다 못한 김씨는 지난 25일 아파트 7층 복도 벽면에 "담배는 집에서 피우세요.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놨다.

하지만, 담배 피우는 행위는 여전했다. 결국 김씨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웃을 찾아가 따졌고, 이는 곧 이웃 간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후텁지근한 장마 등 생활 속 '불쾌지수' 상승으로 인해 사소한 일에 주먹을 휘두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짜증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친구·이웃끼리의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잦다.

술집에서 더운데 에어컨을 켜주지 않는다며 종업원과 다투다가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모(28)씨는 친구 2명과 함께 지난 27일 새벽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이모(34)씨에게 에어컨을 켜달라고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이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8일 새벽 0시50분께에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사는 허모(57)씨가 이웃에 사는 윤모(72) 할머니의 집 1층 마당에 자전거를 던져 정원 펜스를 훼손한 혐의로 서부경찰에 붙잡혔다. 허씨는 윤 할머니의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자주 짖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우발적인 짜증 범죄는 매년 장마철이면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올해는 정도가 심하다는 게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장마철에는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쉽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기보다는 즉각적으로 표출하게 되기 때문에 말다툼·주먹다짐 등이 자주 벌어진다"며 "다른 계절보다도 한층 개인의 감정 컨트롤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당뇨예방 근력운동

29일 광주시 북구 동강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맞춤형 당뇨예방 웰빙 운동교실'에서 노인들이 '튜빙'을 이용해 자신의 질환 정도에 적합한 근력운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12수능 모의평가 9월 1일 실시

학력수준 파악 난이도 조절…EBS 70% 연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9월1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2일 모의평가에 이은 9월 모의평가는 11월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난이도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능력을 진단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며 모든 분야는 수험생이 선택해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대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모의시험 문항과 EBS 수능 교재·강의의 연계율은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개인별 성적은 9월23일까지 통보된다.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시·도별로 비학원생의 접수 가능 학원, 82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장마철 교통사고 작년 하루 평균 266명 사상

광주·전남지역 장마철 하루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하루 평균 266명인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철(6월 21일~8월 10일)에 발생한 광주·전남지역 교통사고 사상자는 1만3532명이다. 하루 평균 사상자 수는 광주가 130명, 전남이 136명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장마철 하루 평균 사상자는 4330명에 달해 2008년 3856명, 2009년 4200명에 비해 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장마철 사상자 증가율이 5.7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이는 운전이 미숙한 20대가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장마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의 양에 따라 규정속도의 20~50% 수준으로 운행속도를 줄여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현상에 대비하고, 상대편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에 쉽게 띄게 전조등을 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유원지 음식점 158곳 광주시 특별위생점검

광주시는 오는 7월20일까지 여름철 피서지 다소비 식품업소에 대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원지 주변 음식점 등 158곳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원지, 공원 등 피서지나 위락시설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및 식품 판매업소 ▲음료류, 빙과류, 냉면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소로 지정해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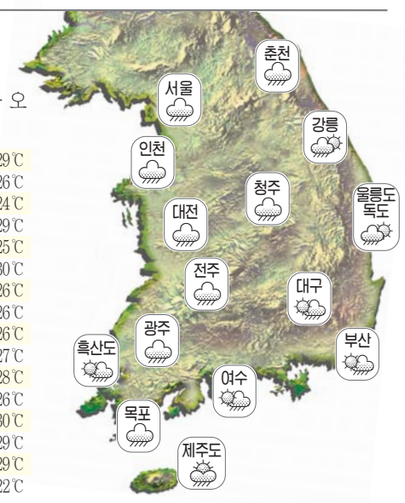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1분 / 해짐 19시 51분 — 달뜸 04시 02분 / 달짐 18시 54분

우산 챙기세요.

낮에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광 주	흐리고비	23/29℃
목 포	흐리고비	22/26℃
여 수	오후부터비	21/24℃
나 주	흐리고비	22/29℃
완 도	오후부터비	22/25℃
구 례	흐리고비	22/30℃
강 진	오후부터비	23/26℃
해 남	흐리고비	23/26℃
장 흥	오후부터비	22/26℃
순 천	오후부터비	22/27℃
영 광	흐리고비	23/28℃
진 도	흐리고비	23/26℃
전 주	흐리고비	24/30℃
군 산	흐리고비	22/29℃
남 원	흐리고비	23/29℃
흑산도	오후부터비	19/2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먼바다	남동~남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먼바다	남동~남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동~남	1.0~2.0m

	밀물	썰물
목포	01:29 13:14	06:56 18:43
여수	08:07 20:49	02:17 14:1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날 씨						
최저/최고	23/29	22/30	22/28	22/27	22/28	21/29

광주·전남북 오늘 10~40㎜ 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북지역에 30일까지 10~40㎜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30일 광주·전남·북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30일 오전에 소강상태에 든 후 오후부터 다시 비(강수확률 60~80%)가 내리겠다"고 29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m로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침에 해안 및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기상청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다음달 1일 새벽께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난 뒤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3일께 또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